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금융외교 : 중-미 패권갈등을 중심으로

채소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목차

1. 서론
2.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 1)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 2) 중앙아시아의 국제정치학적 함의
3.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
 - 1) 9·11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외교
 - 2) 중국의 부상 견제
4.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정치적 함의
 - 1)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벨트
 - 2) 중국 일대일로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5. 결론

요약

최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동 다음으로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 대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의 패권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아시아 회귀 정책을 통해 아시아로의 진출로 지속적인 패권 유지와 중국견제,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으로 나온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윈-윈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제어 : 중-미 관계, 미국-중앙아시아, 중국-중앙아시아, 일대일로, 위안화 국제화

1. 서론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은 민족들의 이동이 있었고 구 실크로드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만큼 전 세계의 교통·물류·운송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역이다.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두 강대국의 갈등이 나타나는 지역이며 최근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자원의 잠재성이 중동 다음으로 많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까지 가세하여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중앙아시아도 이 두 국가의 견제를 엿볼 수 있는 지역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패권 유지를 꾀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부 지역으로의 적극 진출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구축하였다. 일대일로는 시진핑이 2013년 처음 내세운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발언했고 이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상을 통하는 경제벨트인 일대(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인 일로(一路)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육상 경제벨트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기차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심에는 중앙아시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게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최대인 털 미친 지역으로 비교적 쉽게 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역이고 유럽까지 뻗어 나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미국에게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이지만 이미 중국의 영향력이 깊게 스며들어 견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구축에는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국의 부상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통로로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통화 확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안화 사용량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은 거의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안에 들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아직 한계도 많고 전 세계 경제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환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라도 위안화 사용을 확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안화 사용은 충분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콩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허브가 구축되어있고 대만, 싱가포르, 영국, 파리도 허브 구축에 힘쓰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위안화 허브 구축을 추진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본 글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견제 형태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연구해봄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서 더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1)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중앙아시아는 유럽-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3천년 이상 다양한 민족들의 이동로 구실을 해왔다. 또한 고대 세계의 위대한 문명들, 즉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문명, 그리고 이슬람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였다. 이런 이유로 중앙아시아는 오랫동안 거대 열강들의 경쟁무대가 되어왔다. 과거에는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다툼이 펼쳐졌고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우선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세계의 주요 강대국과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중국, 남쪽에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동쪽에는 터키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향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아시아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11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송, 물류, 에너지 분야 등 지역 통합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련붕괴 초기부터 풍족한 에너지자원은 이 지역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에너지자원이 개발되면서 안정적인 운송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또한 중앙아시아의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각국은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 다양한 지역협력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라시아 대륙의 통합이 논의되면서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¹⁾



1) 송상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안보: 파이프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유럽어문학과, 2011

2) 중앙아시아의 지경학적 중요성

최근 중앙아시아는 세계가 산업 자본에서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것에 대한 지리적 전략의 관심으로 국제사회에 부각되었다. 무엇보다도 최근 중앙아시아는 매장된 석유와 가스 같은 경제적 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적 관심지역으로 부상했다. 자원은 전쟁유발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경제체제의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석유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7%를 담당하였고, 그 다음이 석탄으로 27%, 천연가스가 24%를 차지하였다. 이런 소비구조는 석유의 위치가 절대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그 성격상 동일한 석유계통의 연료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면 석유계통의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가 국제관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사용억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야기되고 있지만 대체연료 개발과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등의 대안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인류는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천연자원은 석유와 천연가스다. 석유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스피해 지역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2천억 배럴로 세계 총 매장량의 15~18%에 달하며, 그 중 3/5 이상이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연안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 지역의 매년 매장량에 대한 평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그 경제적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역시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부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모두 합하여 236조에서 337조 평방피트(tcf)의 가스 확인 매장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합한 매장량과 같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략 328조 tcf의 예상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 565조 665조 tcf의 매장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²⁾

3.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

1) 9·11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외교

중앙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있어서 세 가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아직 개발하지 않은 잠재적인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이며 둘째는 향후 부활 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의 복부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고 셋째는 중국을 서쪽에서 포위할 수 있는 지역이다.³⁾

냉전 이후 9.11 발생 전까지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에너지자원 관련 관심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9.11 테러공격이 아프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각 지방재건팀을 설치하여 지방 경제 및 정치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도 사담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이 지방재건팀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바로 옆인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대테러전쟁에 필요한 협

2) 김도현,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011

3) 김도현, 위의 논문

조를 구하는 한편 각국에 전쟁협조에 상응한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미국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속임수로 민주주의적 체제개혁과 시장경제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진작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에 새로 탄생하게 될 민주주의 정부는 미국정부의 지원이나 비정부기구의 지원으로 민주정권을 수립하게 되어 결국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친미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따라서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민주주의를 확산함으로써 테러의 근원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친미정권의 탄생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게 되어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하는 이점을 가지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무력으로만 점령한다면 점령국은 반항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제정에 많은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전쟁이 언젠가 종료되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도 주변국의 반발의 사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을 줄여야한다. 이렇게 미군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도록 하려면 이들 각국에 미국이 지원한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 국가들의 정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제정은 자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판매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어 미국의 큰 재정적 부담 없이도 이들 국가들이 자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국은 21세기를 시작하며 발생한 9.11테러를 기회로 잠재적인 테러지원 정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친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인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러도 시도를 통해 이 지역의 자원 확보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꾀하고 있다.

2) 중국의 부상 견제

69년 진보도 사건으로 인해 중소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가 시작되어 79년 1월1일 중-미 우호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89년 중국의 천안문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탄압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태도를 확고히 인지함으로써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 79년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개혁개방을 하여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 때문에 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에게 최대 위협국으로 부상하였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권외교, 정치적 자유 제한에 대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고립, 자국의 최강대국 위치 지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 군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반면 미국의 국력 하락세가 뚜렷이 보인다. 이러한 정세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가장 최적의 수단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주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의 석유자원 접근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이 유일하게 충분한 통제 지역이 아닌 중앙아시아와 손잡고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석유생산지역이나 석유수송로는 모두 미국의 군사적 영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카스피 해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며 냉전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대규모 유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았다.

만약 중앙아시아지역의 천연자원이 미국의 통제 밖에서 자유로이 중국으로 흘러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중국으로 석유자원을 수출하는 중앙아시아 각국이 중국과 경제 군사 면에서 더욱 밀착한다면 미국으로서

는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고 말 것이다.

4.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1)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벨트

최근 중국 지도부는 '신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을 공식 석상에서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2013년 9월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강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구 30억 명을 포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구축에 관한 구상을 처음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유라시아 각국의 경제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상호 협력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역협력에 대한 협상 및 정책소통 강화, 동아시아·서아시아·남아시아의 교통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 연결망을 확대하고 인구 30억 명을 포괄하는 엄청난 시장 규모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친 개념이다. 육상 경제벨트는 시안, 우루무치, 중앙아시아, 이스탄불, 뉘스부르크를 거치는 길이고 해상 실크로드는 푸젠성 취안저우(泉州), 광저우,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홍해, 지중해를 지나는 길이다.



현재 시진핑 정부는 2013년 11월, 총 길이 2만 km의 광둥성 동관-러시아 모스크바 간 국제화물철도를 개통하였고 중국-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로 연결되는 장안호도 개통되었다. 한편 중국 국내적으로도 철도를 깔아 훗날 철도 연결 계획에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적극적으로 철도 연결 착공에 대해 협의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공동탐사 및 개발협력 강화에도 합의 해 2017년까지 교역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⁴⁾

중국이 신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는 배경은 아시아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와 자국 변경

지역 개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복잡한 민족문제가 얽힌 자국의 서북과 서남지역의 개발과 안정을 꾀하고 있다. 서북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감숙성 등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인프라 투자 및 물류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서부 지역 파급 효과로 세계경제에서 중국 내륙지역의 위치가 상승하고 산시성 시안 지역의 우세가 더 부각 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최근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주변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실크로드의 구축은 이를 위한 명분과 실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표인 국제사회에 더 깊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어 중국과 중앙아시아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고, 중앙아시아는 2012년 이후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경제를 회복할 최적의 타이밍인 것이다.⁵⁾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응하여 신 실크로드 구축을 마련했다. 신 실크로드를 크게 놓고 보면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길고 발전 잠재력이 큰 경제 벨트 구축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새로운 무역 질서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아시아는 물론 동유럽 등지를 놓고 미국·러시아·유럽연합(EU)과의 주도권 싸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위안화 국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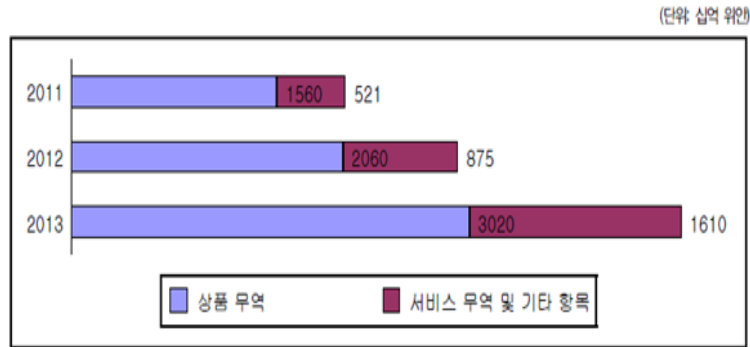
중국 일대일로의 국제정치적 함의로는 위안화의 국제화가 있다. 구 실크로드가 비단을 주로 실어 나르는 통로였던 반면 신 실크로드는 에너지의 통로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는 에너지 공급국이 몰려있는 것도 중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공급 국가와 결제 통화로 위안화를 사용하여 실크로드 경제 벨트 구축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중심의 석유 결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위안화 국제화란 위안화가 해외에서 사용 및 유통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결제, 투자 및 비축통화로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전략에 따라 최근 세계적으로 위안화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아시아 무역은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위안화 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위안화 허브라는 것은 중국 본토 이외에서 위안화 표시 금융거래가 집중되는 위안화 관련 금융 서비스 집적지를 말하는 것으로 홍콩을 중심으로 대만, 영국, 파리, 싱가포르, 대만을 주축으로 형성되어있다.⁶⁾

카자흐스탄의 역외 위안화센터 건립 논의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도로·철도·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도와주는 차관으로 위안화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것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유럽의 부흥을 위해 마셜 플랜을 통해 미 달러를 국제화한 전략과도 맥이 통한다.

4) 이효진·김영선·이장규,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지역경제포커스, 2014.09.01
 5) 최다원,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더 가까워지는 유라시아 경제권」, KOTRA, 2013.12.09
 6) 안유화, 「위안화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4.02.11

그림 1. 위안화 역외 무역 결제 현황



자료: 중국은행, 재인용: PwC Luxembourg.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이미 2006년 2800km 길이의 송유관을 깔아 막대한 석유를 들여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무역액은 2012년 460억 달러로, 이들 국가와 수교를 맺은 2002년에 비해 100배 늘었다.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통해 도로, 화폐, 무역, 정책, 민심이 통하는 길을 닦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⁷⁾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 준비자산(reserve asset)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 스왑협정 체결을 확대했고 2008년부터 한국, 홍콩,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1개국과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정도가 여전히 낮고 해외에서 무역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비중이 달러와 유로화에 비해 낮지만 앞으로 기축통화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만큼 영국,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위안화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⁸⁾

[표 1] 중국의 국가간 통화 스왑 협정 체결 현황

(단위: 억 위안)

| | 한국 | 홍콩 | 말레이시아 | 벨라루스 | 인도네시아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싱가포르 | 뉴질랜드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
| 규모 | 1,800 | 2,000 | 800 | 200 | 1,000 | 700 | 35 | 1,500 | 250 | 7 | 75 |
| 시기 | '08.12 | '08.12 | '09.02 | '09.03 | '09.03 | '09.03 | '10.06 | '10.07 | '11.04 | '11.04 | '11.06 |

자료: 국내외 언론 보도 종합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환전비용의 절감이라는 이윤이 있기 때문에 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입지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 자본시장 자유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축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위안화 허브 구축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미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무역 규모가

7) 오광진, "[GLOBAL_중국]새 비단길 열어 중화 부흥 이끈다.", 한국경제비즈니스, 2014.06.17

8) 이정진, 「최근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 및 향후 전망」, KB daily 지식비타민, 2012.07.03

큰 만큼 위안화 허브 구축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국제무대에서 중요지로 부상할 것이며 중국과 유럽을 잇는 최고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앞서 밝혔듯이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특히 전 세계 각 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앙아시아에서도 두 국가의 견제가 표면화되어 나타났으나 중국의 우선 진출과 지리적 인접성, 경제교역 확대 등의 이점을 이용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축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제 통로 형성을 추진 중이며 육상 경제벨트의 중심에 중앙아시아를 두고 철로를 형성하였다. 이는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국의 부상에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고 중앙아시아 또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구축은 중앙아시아에게도 기회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일대일로 구축의 정치적 함의로는 위안화 국제화가 있다. 최근 무역결제통화로 위안화 사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위안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만큼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이권을 잡으려고 노력중이다. 카자흐스탄 또한 위안화 허브 잠재성을 많이 가진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위안화 허브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윈-윈 전략을 통해 부상하는 만큼 한국도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를 연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목표로 할 필요성이 있다. 부산,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하여 전력·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움직여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만큼 중국이 선두로 하는 일대일로를 이용하여 한국까지 연결한다면 한국 또한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경제권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일대일로 구축과 함께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여 세계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한국에게도 가입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만큼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등거리 외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인 외교 관계 구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 하에서 최대 이익을 생각하여 자주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주적 외교는 결국 통일을 협의하는데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북한과 양국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송상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안보: 파이프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유럽어문학과, 2011

김도현,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011

이효진·김영선·이장규,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지역경제포커스, 2014.09.01.

최다원,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더 가까워지는 유라시아 경제권」, KOTRA, 2013.12.09.

안유화, 「위안화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4.02.11.

오광진, "[GLOBAL_중국]새 비단길 열어 중화 부흥 이끈다.", 한국경제비즈니스, 2014.06.17.

이정진, 「최근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 및 향후 전망」, KB daily 지식비타민, 2012.07.03

